



인도 우따르쁘라데시주 아요디아(Ayodhya)에 있는 히누만 신의 메인사원 앞을 수행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총명하고 용맹이 상징인 히누만을 기리기 위해 신도들은 맨발로 사원을 찾는다.

/인도 아요디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라마 돕는 용감무쌍 충성의 아이콘 ... 손오공의 모태



아요디아의 한 히누만 사원 입구에 원숭이 얼굴을 한 히누만 상이 서 있다. /인도 아요디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문화 (21) 원류를 찾아서 3부 인도편

6 원숭이신 '히누만'

아요디아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히누만은 몸을 거대하게 키웠다.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던 마헨드라 산이 발발의 조약돌처럼 보였다. 그는 그곳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며 바다를 건너 랑카로 들어가기에 좋은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랑카 땅에 상륙하자 히누만은 몸을 눈에 띄지 않는 크기로 줄이고 시따를 찾기 시작했다.”(라마야나 中)

바람 신의 아들이자, 원숭이 신으로 불리는 히누만(Hanuman)은 인도 북부에서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다. 코끼리 얼굴을 한 가네샤(Ganesha)와 더불어 동물의 얼굴을 가진 신 중 가장 유명한 힌두교 신이다. 히누만의 인기가 높은 것은 라마야나(Ramayana)에 묘사된 그의 용맹함과 초능력 덕분이다.

산보다 더 거대하게 몸집을 키워 마을을 쓸어버리는가 하면, 새털처럼 작은 모습으로 변해 열탐꾼의 역할도 한다. 하늘을 날 수 있어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지혜가 뛰어나 라마 일행이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책을 내놓는다. 라마에게 충절을 다하기 위해 원숭이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악마 라바나를 처단하는 모습은 라마야나의 백미이기도 하다.



스파이더맨 같은 만화 캐릭터 가면과 히누만 신의 얼굴이 가면이 돼 함께 필리는 모습은 인도에서만 볼 수 있다. /인도 산띠니개만=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화·만화 속 손오공 활약상은 '라마야나'의 한토막

지혜와 총명 상징... 학생들에 '시험 신'으로 통하기도

인도 북부 우따르쁘라데시주 라마의 고향인 아요디아(Ayodhya)에는 히누만의 메인 사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힌두교인들은 주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거나 그의 용맹함과 총명함을 기리며 히누만 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

뉴델리(New Delhi)의 히누만 사원에서 만난 대학생 찬드라(Candra·21)씨는 “히누만의 숭배일인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인도의 학생들이 히누만에게 항상 기도한다”며 “지혜와 총명함의 상징인 히누만은 인도 학생들에게 ‘시험의 신’으로 인식된다”고 얘기했다.

원숭이 얼굴을 한데다 뛰어난 지략과 총명함, 초능력을 가졌다니, 이쯤 되면 오승은이 쓴 ‘서유기’의 손오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히누만이 바다 위를 날아 섬으로 건너가려고 하자 괴물 스라사가 히누만을 삼키려 했다. 그러자 히누만은 몸을 크게 만들어 스라사의 입을 크게 벌린 다음, 순식간에 엄지 손가락만 한 크기로 몸을 줄여 스라사의 입으로 들어갔고, 두개골 속을 휘저어 쓰러뜨렸다.”

영화나 만화 등에서 자주 접한, 마치 ‘손오공의 활약’ 같은 이야기는 사실 라마야나의 한 토막으로, 히누만의 활약상이 손오공과 유사한 점은 틀림없다.

실제로 5세기쯤부터 불교 경전인 ‘리우두 지 징’(Liudu ji jing)을 통해 히누만 이야기가 중국으로 건너가 서유기로 만들

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 고유의 캐릭터라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손오공(=히누만), 삼장법사(=라마)와의 관계나 이야기 배경 등이 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

힌두 신화에서 히누만은 원래 천상에 살았는데 태양신 수리아를 괴롭히다 인드라(번개의 신)에 의해 지상으로 추방됐고, 손오공은 천상의 복숭아 연회를 망치고 난동을 부리다가 돌산에 갇힌 것처럼 활약에 앞서 프로그부터 비수하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선 서유기의 손오공이 잘 알려졌지만 라마야나의 영향권에 속한 동남아시아만 해도 손오공보다 히누만이 더 유명하다.

라마야나를 ‘라마케안’(Ramakien)으로 부르는 태국에선 히누만 이야기가 인도보다 더 부풀려져 숭배된다. 라마케안을 무대에 올려 춤으로 선보이는 태국 전통쇼 ‘콘’(Khon)에서는 히누만이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쇼의 절정을 담당한다. 콘의 주인공이 라마가 아닌 히누만일 정도다.

바라나시 베나레스 힌두 대학의 미쉬라(55) 산스크리트학과 교수는 “인도인들은 서유기를 잘 모르지만 만약 서유기를 읽는다면 금세 히누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원숭이가 히누만인가, 손오공인가를 따진다면 이야기의 기원으로 볼 때 히누만이 원형일 것”이라고 말했다.

히누만 콘텐츠화는 시작단계

인도·태국 아직은 미흡...최근 할리우드서 영화 움직임

서유기는 그 제목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일본 만화 ‘드래곤볼’도 서유기를 차용했고, 이 드래곤볼은 또다시 미국 할리우드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됐다.

‘치키치키차카차카쵸코쵸코쵸’로 시작되는 유명한 주제가의 만화영화 ‘미스터손’도 손오공의 모험을 그린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이다. 흥공영화 중엔 주성치의 ‘월광보합’, ‘선리기연’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히누만을 원형으로 한 서유기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버전의 콘텐츠가 생산됐지만 정작 히누만을 직접 다룬 콘텐츠

는 발전이 더디다. 인도에서는 다소 영성한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하다 2005년이 돼서야 ‘히누만’을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태국에서는 어린이 관객을 겨냥한 ‘히누만’ 특수촬영 영화가 나왔지만 완성도에는 의문을 남겼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히누만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킨 모험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초능력 원숭이’의 대명사가 손오공에서 히누만으로 바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요디아=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